建築界의 来日의 展望

宋 旼 求
(宋旼求建築研究所 代表)

만일에 来日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必然的인 過程을 더듬는 것이 될 것이며, 그러한 단조로운 생활속에서는 矛盾을 内包하고 있는 人間은 오히려 앞길을 비극으로서 끝을 맺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未来를 내다보지 못하게 한 神의 섭리가 고맙기만 하다.

특히 급변하는 世界情勢속에서의 우리들의 来日은 어떻게 展望이 가능한가 필자는 経済를 모르기 때문에 建築界의 経済的 측면에서의 来日을 展望하지도 못하지만은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開発途上国家로서 언젠가는 先進国의 대열의 한 구석을 차지 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때까지에는 우리들이 노력하여야 할일,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또 현재의 곤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앞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 또 来日을 展望한다는 것은 새로운 希望에서 마음을 가다듬는데 오히려 뜻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통도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나는 생각한다.

学界에서는 많은 博士를 배출하고 있는 밝은 소식이며, 建設業界 역시 많은 業体가 해외로 진출하므로써 새로운 施工技術을 습득하여 반세기 이상 뒤졌을 우리들의 技術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문제는 다른 측면에 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에 있으며, 来日을 展望하느니 보다 来日의 向方을 定立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우리들이 創作함에 있어서 作品이 지녀야 할 요소가 美的価値와 時代精神이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으며, 時代精神 즉, 좁은 뜻에서는 그 時代를 영도하는 思想이 모든 것의 으뜸가야 할 일이 1945년 2次世界大戦의 비극의 막이 내린 후 약 30년 동안 現代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物質文明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変化의 폭과 時間의 흐름이 빠르고 넓음으로서 人間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파 놓은 깊은 断崖로서 文明으로부터 반대로 遊離당하고 말아 버렸다.

経験科学이 이루어 놓은 頂点은 人間의 思想的空白상태의 폭을 넓혔으며 識者들은 人間이 救済받을 길은 영영 없어졌다고 絶叫마저 하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자. 고도의 기술의 산물인 대부분의 공업은 그의 公害라는 害毒으로 生物들을 차츰 滅種시키고 人間을 病들게 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를 좀먹기 시작하여 人間을 幸福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 믿었든 物質文明의 힘은 人間의 統制力을 잃어버리게 하고, 人間을 위협하며, 파멸의 위기까지 몰고 와 버렸다.

Descartes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存在한다」라는 말을 남긴지 200년 人間은 理性에서만 真理를 찾을 수 있고 経験에서는 物質文明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砂漠과 같은 不毛의 人間의 마음에는 꽃이 피기에는 너무나도 아득 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어떤 学者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自然的인 存在인 人間의 内面에서 작용하는 위대한 反自然의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理性이라는 것이며, 이의 産物로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制度와 정교한 体系에 따라서 오히려 人間은 속박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경화되여 버렸다는 것이다.

芸術分野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ubism이 그러하듯이 理性이 機械美와 더불어 오랫동안을 建築이라는 造形芸術을 지배하여 왔으며, 大戰 후 人間性이 소실되어감과 思想의 再建의 절박함을 느끼는 속에서 CIAM의 老匠들의 구태의연한 생각은 오히려 人間生活의 荒廢마저 予見 되였기 때문에 一団의 젊은 建築家들은 이것을 崩壞시키고, Team 10을 조직하였으며, 또 第一世代의 巨匠들의 죽음으로서 차츰 建築界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켰던것이다.

Thomas Creighton 은 그것을 chaos 現象, 天地創造때의 混沌現象으로 표현하였으나 한가지 뚜렷한 것은 思想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일찌기 Bergson 은 理性과 経験을 包括하는 生命에서 그의 哲学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Descartes가 말한 意識함으로서 存在한다는 그 意識의 深層에 Husserl는 그의 現象学의 발판을 둠으로서 다시 말하여意識은 生命에서 움트는 것이며 現象学의 밑바탕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또 Husserl의 静的인 意識의 分析에서 Heidegger의 動的인 把握으로 출발한 存在論은Jaspers, Sartre에 이르기 까지 意識함으로서 存在하는 자기자신, 즉 実存에서 思想의 기반을 두자는 이 모든 것이 人間의 生, 또는 存在를 肯定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思想에 근거를 둔 建築芸術의 一連의 흐름은 비록 그것이 chaos現象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哲学과 더불어 珠玉같은 作品을 안겨다 주었으며, 우리들은 그 이상의 것 그들의 靈感의 啓示를 물려 받었다는 것이다.

Wright는 自然의 有機的인 生命의 모습을 Höring은 生의 哲学을 또 Kahn 또한 Bergson의 生命의 哲学을 그들의 造形芸術을 통하여 우리들을 일깨워 주었든 것이다.

과거의 機械美를 대신하여 Avant garde 芸術은 technology를 적극 芸術에 결부시키려는 消極的인 태도와 既存思想을 바탕으로 한 芸術을 否定하는 非芸術의 芸術 이라는 絵画, 彫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극的인 태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目的芸術인 建築에서는 目的마저 否認할 수는 없으나 人間이 지니고 있는 가장 人間的인 矛盾性과 複雜性을 肯定하며 表現하자는 Rovert Venturi의 創作 태도는 또한 무엇을 말함이었을가.

Rickert가 말하기를 認識이라는 것은 模写가 아니고 改造이며 単純化다 라고 하였는데 既存哲学에서의 認識의 定義를 否定하고 現象学的인 複合性에 대한 肯定은 人間的인 것을 전폭으로 받아 들이자는 데에 뜻이 있다고 본다.

또 Venturi가 지적한 Goedel의 不完全性定理라 함은 算術의 合理大系가 矛盾이 없다는 것을 그 大系속에서는 証明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1931년 Kurt Goedel 이 証明하였는데, 이것은 普遍性과 必然性을 지녀야 할 数学자체가 矛盾을 内包하고 있다는 뜻을 넘어 서서 理性에 立脚한 芸術은 終幕을 내려야 된다는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진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Le Corbusier의 Ronchamp寺院을 理解하였고, Neo-Classicism의 感傷主義의 천박함을 알았으며 Alvar Aalto, Hans Scharoun을 찾었던 것이다.

우리들 주위를 살펴 볼 때 過誤도 많았으나 그러나 지나간 모든 것을 綜合하고 来日을 展望할 때 우리들 앞에도 빛나는 希望은 틀림없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들이 思想的 空白 思想的 危機 思想的 再建을 말하기 이전에 思想의 貧困을 느끼게 되고 来日의 向方의 定立을 위하여 人間의 尊厳性 人間性의 回復에 대하여 모든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人間에게 建築家로서 무엇을 奉仕하였는가, 또 奉仕할 것인가 오늘도 来日도 思索하며 省察하여야 될 것이다.